



돈도 있고 많이 알고는 있지만...

한미 FTA시대 개막 업종별 점검

재테크는 실천하는 용기가 중요하다

휴대폰 요금제부터 간간히 따져보는 습관을 자투리 돈 몇만원이라도 저축부터 하고 보자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같은 회사의 컨설턴트 분이 고객에게서 받은 이메일 내용이다. 짧은 말이지만 고객의 행복을 위해 재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컨설턴트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이 아닐까 싶다.

세상을 살다 보면 과거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더라면, 그리고 그 결정을 실천했더라면 지금 상황은 많이 변해 있을테라라는 말을 하곤 한다.

그 때 내가 그 주식을 샀더라면, 그 때 내가 그 아파트를 샀더라면 적어도 지금 보다는 훨씬 경제적으로 나아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에서 나오는 말일 것이다.

5년 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 그리고 5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분명한 것은 현실에 몰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5년 후의 모습도 지금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모든 사람들은 재무적인 불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미래를 위해 무엇인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무적인 불안전성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인 불안전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거나, 알고도 모르는 척 한다.

재무적인 불안전성이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자산을 있지만 부동산에 묶여있어 대출금 갚느라 심적으로 가난하거나, 아는 사람의 권유에 많은 보험에 가입해놓고 이리저리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거나, 자신의 휴대폰 요금제가 뭔지도 모른 채 불필요한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과 같이 흔히 볼 수 있는 재무적인 문제들이 바로 그것이다.

자신의 재무적인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때 비로소 이를 실천해야 한다는 용기가 생기기 될 것이다. 실제로 월 생활비 300만원으로 생활하던 사람에게 월 50만원으로 살아가라고 한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야 하는 동기부여와 실천에 대한 용기가 있다면 누구든지 현실에 맞게

생활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재무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아 실천할 때 비로소 다급위젯바퀴와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단지 귀찮거나 괴로워서 변화를 포기하는 것은 5년 후, 10년 후의 행복을 버리는 것과 같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삶에 변화를 주고 무엇인가를 내내 해야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하지만 시작은 괴롭지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실천할 때 비로소 행복이 그려지기 시작할 것이다. 실천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도 무엇보다 큰 것이라 고 감히 말씀드려야 한다.

독자 여러분들도 작은 재무적인 문제점부터 시작하고, 이를 통해 자투리 돈 몇 만원이라도 남겨 저축해 보는 것이 어떨까?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조그마한 일이라도 실천한다면 이를 통해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TNV 어드바이저 FP팀장)

자동차, 노사 생산력 저하 극복을 영화·출판 ‘세계화’ 체질개선 시급

(2) 자동차·문화 분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분야는 자동차 산업이다.

특소세 인하, 보유세 체계 간소화 등 세계계권의 효과로 차값이 싸져 내수시장 회복이 기대되는 데다 당장 수출비중이 70%에 달하는 3,000cc 이하 중소형 차량의 대미수출 관세(2.5%) 철폐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 확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자동차계가 이번 FTA 타격을 계기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후진국형의 노사관계, 생산성 문제, 친환경·미래형 기술 취약 등 고질적인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미 FTA 타격으로 2,000cc 이상 차량의 특별소비세가 10%에서 5%로 낮아지고 보유세제가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면 중대형 차량의 국내 소비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하 혜택은 고가차일수록 크다. 현대차의 그랜저 Q270럭셔리 모델은 특소세 혜택으로 판매가격이 2천800만원으로 171만원이 떨어지는데 비해 오퍼러스 GH330럭셔리 모델은 4천120만원에서 3천883만원으로 인하폭이 237만원에 이른다.

국내 자동차메이커들은 3,000cc미만 차의 대미 수출관세 (2.5%)가 가장 철폐될 경우 대당 200~300달러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원화강세에 따른 가격 상승조정으로 북미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산업연구원 조철 연구위원은 “2.5%의 관세가 사라지면

5%의 수출 증가 효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미 FTA 타격은 국내 자동차산업에 기회이기도 하지만 세계 선진 차 메이커들과 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이 고질적인 노사불안, 생산력 저하 등 문제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기술개발,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격으로 문화산업분야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미국 법에 따라 저작권보호기간을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출판·음악·캐릭터 등 문화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2천 111억원에 이를 것으로 문화관광부는 추산했다. 이 가운데 미키마우스 등 미국 캐릭터에 지급해야 할 비용이 1천407억원으로 가장 크다.

캐릭터 분야는 추가비용 규모가 크더라도 국내 관련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출판분야는 외국 서적을 번역·출간해온 국내 영세 출판사들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해 고전명작이나 학술서적 등의 출판이 위축될 수 있다. 출판분야에서 향후 20년간 발생할 저작권료 추가비용은 679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영화산업은 스크린쿼터가 73일로 고정됨으로써 한국영화를 육성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수단을 잃었다. 지난해 7월부터 146일에서 73일로 줄어든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는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한국영화는 할리우드 영화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 자체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 /연합뉴스

직장인 24% ‘투잡족’

직장인 24% 가량은 주 직업 외에 부업도 병행하는 ‘투잡족(Two-job族)’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은 최근 리서치 전문기관 폴레버(www.pollever.com)와 함께 직장인 2천050명을 상대로 ‘투잡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3.9%가 ‘현재 부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응답자 중 55.1%는 ‘여건이 되면 부업을 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으며 부업 의사가 없는 응답자는 21.0%였다.

현재 부업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들은 ‘단순 아르바이트’(27.4%)가 가장 많았고 ‘전공 관련 프리랜서 업무’(22.7%), ‘본업 관련업무’(17.4%), ‘취미생활과 연관된 사업’(12.7) 등의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부업을 하고 있는 응답자 중 71.2%는 부업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있었으며 그 이유는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선입견을 줄 것 같아서’(44.8%), ‘알릴 필요가 없어서’(33.3%), ‘인사고과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13.5%), ‘회사에서 부업을 금해서’(8.3%) 등이었다. /연합뉴스



이달부터 DMB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 가운데 KT는 5월 와이브로와 이동전화, DMB를 이용할 수 있는 와이브로폰 출시에 맞춰 외식 전문 패밀리 레스토랑 베니건스와 공동 홍보마케팅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현정은 회장 피소될 듯

예보, 현대건설 부실 관련 520억 손배소 제기 요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건설 부실과 관련된 책임 문제로 소송을 당하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5일 신한은행과 대한생명 등 금융기관에 현 회장을 상대로 현대건설 부실과 관련해 52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법상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은 부실책임이 있는 회사의 임

직원이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손배소를 제기하도록 돼 있다.

이번 소송에는 김윤규·이내흔 전 사장 등 현대건설 전직 임원 7명도 포함됐다.

예보는 또 분안 소송에 앞서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현 회장 등의 재산목록을 채권금융기관 등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은행 조건부 주택대출 ‘속앓이’

만기 시점 집 안팔려 연체 사례 빈발

최근 부동산 기기가 둔화되면서 기존 주택을 1년내 처분기로 약속하고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받는 대출인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연체 사례가 발생하자 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다.

막상 만기 시점에 집이 팔리지 않아 사채를 이용하거나 집을 강제 경매당할 처지에 놓인 고객들과 마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달이후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우리은행의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6천11건, 8천

270억원에 달하고 있다.

국민·신한은행 역시 처분조건부 주택대출 잔액이 우리은행처럼 1조원대를 기록하고 있어 연내 3개 은행에 만기가 오는 대출 규모는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 전체로는 연내 6조원 규모의 대출이 만기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은행들은 최근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빠지고 있어 대출금 상환을 못하고 연체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우리은행의 처분조건부 대출 연체 규모는 3월말 현재 9건, 8억5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처분조건부 대출 잔액이 1천875억원으로 3대 은행의 12~18% 수준에 불과한 외환은행 역시 1건의 연체가 발생한 상태다.

고객이 만기에 처분조건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15% 가량의 연체 이자를 부과한 뒤 이후에도 3개월 내로 대출을 갚지 않을 경우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은행들은 그러나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고객의 사유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것은 마찰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연합뉴스

사금융시장 18조원

이용자도 330만명 달해

등록업체와 무등록업체를 합친 전체 사금융시장의 규모가 약 18조원정도에 이르며 이용자가 32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회사원으로 나타났으며 금융기관 이용이 힘든 저소득 계층이 이용하는 무등록업체의 대부분은 법정 이자율인 66%를 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중간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FTA 피해기업 지원 시작

이달말 ‘무역조정제도’ 시행

산업자원부는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51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자구계획이 있어야 한다.

산자부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단기 경영자금과 설비투자 등 경쟁력 확보자금을 융자하고 기술과 경영 등을 컨설팅해주는 방식으로 구조조정 내지 업

종 전환을 돕게 된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모두 2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또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상 근로자는 무역조정지원 대상 기업 및 해당 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수입상품 증가로 해외로 이전한 기업의 근로자로, 실직하거나 2개월 이상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0% 이상 줄어든 경우다.

조건에 부합해 노동부로부터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되면 1인당 300만원 한도내의 전직 지원 서비스와 훈련연장급여, 단기 훈련과정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연합뉴스

SKT 직원 한사람당 6억 번다

상장사 549곳 분석 ... 가스공사 2억 공기업 최고

SK텔레콤 직원들이 작년 상장기업 직원 평균의 10배 가 넘는 이익을 회사에 안겨 준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6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598개사 가운데 지주회사와 분할·합병사 등을 제외한 549개사의 1인당 평균 영업이익은 5천491만원이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4천349명의 직원을 동원해 2조5천843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 직원 1인당 5억9천424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며 2년 연속 상장사 최고의 수익성을 자랑했다.

SK텔레콤은 무선인터넷 수익이 급증한 가운데 예상보다 적은 설비투자로 인한 감가상각비 절감, 마케팅비용 축소 등에 힘입어 높은 수익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위는 4억3천881만원을 올린 LG석유화학이 차지했다. 이 회사를 포

함, S-Oil(3억9천427만원), E1(3억434만원), 호남석유화학(2억5천418만원) 등 석유화학업체들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영업마진 증가에 힘입어 상위 15위 안에 들었다.

고려아연은 아연가격 상승으로 마진이 대폭 확대되며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이 4억3천613만원으로 3위에 올랐다.

대한해운은 벌크선운임 인상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며 직원 1인당 2억9천471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6위에 랭크됐다.

성원건설(2억1천837만원), 현대산업개발(2억59만원), 대우건설(1억9천618만원) 등 건설업체들은 작년 아파트값이 급등한 가운데 상위 40위 이내에 들어 눈길을 끌었다.

한국가스공사는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이 1억9천801만원으로 공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1억원을 넘었다. /연합뉴스

2006년 직원 1인당 영업이익 상위 10개 상장사

| 회사명 | 직원수(명) | 영업이익(백만원) | 1인당영업이익(만원) |
|--------|--------|-----------|-------------|
| SK텔레콤 | 4,349 | 2,584,370 | 59,424 |
| LG석유화학 | 589 | 258,461 | 43,881 |
| 고려아연 | 806 | 351,517 | 43,613 |
| S-Oil | 2,348 | 925,749 | 39,427 |
| E1 | 217 | 66,041 | 30,343 |
| 대한해운 | 303 | 89,298 | 29,471 |
| LG카드 | 4,166 | 1,191,182 | 28,593 |
| KTF | 2,505 | 668,747 | 26,696 |
| KT네트웍스 | 83 | 21,625 | 26,054 |
| 호남석유화학 | 1,005 | 255,447 | 25,418 |